



FCP 긴급 요청

케이티앤지 주주 여러분,

어제 3 월 24 일 국민연금은 FCP (Agnes)가 제안한 모든 안건에 대한 반대, KT&G 이사회 의 모든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글로벌 최고의 자문사인 ISS 의 권고안과 완전히 정반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그리고 정부기관인 기업은행, 경영진을 지지하리라 예상되는 각종 재단 및 기금을 포함한 약 30%의 의결권이 회사 경영진의 편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30%는 예상되는 가장 최소 지분이며, 주총 예상 참석률 약 70%를 감안한다면, 매우 큰 지분입니다.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이미 해외 투자자들의 투표가 사실상 큰 틀에서 마무리 된 것을 감안하여, 더욱 마음을 다잡고 국내주주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케이티앤지가 주인 있는 회사, 주주를 주인이라고 인식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1) 여러분 모두가 투표하시고, 2) 저희 FCP (Agnes)안에 집중해서 투표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FCP 이 사외이사 후보는 차석용 / 황우진 님입니다. 사외이사 후보 자리가 2 석인 경우 (제 7 호), 후보자리가 4 석인 경우 (제 8 호), 그리고 감사위원의 경우 (제 9 호) 모두 차석용 / 황우진 두 분 뿐입니다. **결코 표가 분산되어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경영진을 도와서는 안됩니다.**

만 주를 갖고 있어도 주주이며, 단 한 주를 갖고 있어도 주주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주주는, 계속 무시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 / 개인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전체 참석율을 80%, 90%로 올리는 것만이, KT&G 를 “주인 있는 회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회사의 경영진도, 국민연금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내기관을 비롯하여, 개인 주주분들의 투표율이 80%가 넘도록, 모두가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탁결제원을 통한 전자 투표, 또는 비사이드를 통한 전자 위임을 마치신 후, 저희 FCP, 비사이드에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 댓글 등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총이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Agnes

대표이사 이상현